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백종헌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59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2. 28.

발 의 자 : 백종헌 · 서천호 · 최보운
정성국 · 박충권 · 진종오
이헌승 · 고동진 · 정희용
박정하 · 김용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차 사고 등 피해자의 치료비용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한 경우 가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치료임을 공단에서 인지하지 못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.

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험급여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중복수령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해자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의 책임 면탈을 막는 동시에 보험재정 누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.

대법원 2018다287935 판결에서 “통보 및 조회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8조제1항(보험급여 후 구상)에 관한 통보의무자를 보험가입자뿐 아니라 의료기관 등도 포함하여 다양화하는 등 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

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”고 명시함.

이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제3자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등은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3자의 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공단의 보험급여 발생을 인지하는 즉시 해당 내용을 공단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행위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58조의2 및 제119조제4항제3호의2 신설).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2(제3자 행위로 발생한 보험급여에 관한 통보)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②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58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

③ 제1항·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,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119조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2. 제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58조의2(제3자 행위로 발생한 보험급여에 관한 통보) 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 사유가 생겨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등 제58조에 따른 제3자의 행위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그 제3자의 행위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제1항·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,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
<p>제119조(과태료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	<p>제119조(과태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</p>

현행	개정안
1. ~ 3. (생략) <u><신설></u>	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제5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공단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</u>
4. ~ 6. (생략) ⑤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